

‘평생학습 새 삶을 두드리다’ 수기 공모전

부문	비학위과정	성명	박 완 숙
제 목	60이면 은퇴? 천만의 말씀. 제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p>신기루 같이 눈에 들어 온 조선일보의 ‘알립니다’ 기사를 보고 주저 없이 펜을 들었습니다. 무릎을 치며 새 삶을 두드리게 한 평생학습경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p> <p>여자가 무슨 공부냐</p> <p>1978년 안양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는, 그 당시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학업의 꿈을 접은 채 사회로 뛰어들었습니다. 2남 4녀로 형제가 많았던 까닭도 있거니와, 여자가 너무 많이 배우지 않고 취직해서 일 하는 것이 조신하고 일반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지적공사에 입사해서 열심히 일 했고,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이 때는 제 나이 60에 새로운 열정으로 학업을 이어가는 삶을 살 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p> <p>작은 한 걸음, 첫 번째 실패</p> <p>저는 문학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넉넉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결국 남편을 설득한 끝에 2004년 방송통신대학교에 진학해 학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꾸린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 시대 친정의 경조사,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1학년을 마치고 잠시 학업을 유보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결핵성 늑막염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되면서 학업의 꿈은 그렇게 다시 멀어져 갔습니다.</p> <p>첫 번째 평생학습 성과, ‘시인’이 되다.</p> <p>평생학습을 갈구하던 그 때, 시를 좋아해 메모해 놓았던 일기와 끄적거림을 들춰보면서 나를 일으켜 세워보기로 했습니다. 인사동에서 선생님들의 뒤를 쫓아다니며 시를 공부했고, 모임의 평가회를 통해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남편이 밤 늦게까지 시를 공부하고 돌아온 저를 눈빛으로 타박하기도 했지만, 열정을 가지고 임하는 저를 묵묵히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의 노력 끝에, 결국 문학시대(구시대문학) 시부문 신인상을 수상하며 드디어 시인으로 등단하게 되었습니다. 데뷔작인 「섬강을 지나며」(시문학사)를 비롯해, 오감도출판사에서 출간한 「그리움으로 그리는 그림」까지 4권의 시집을 출간했습니다.</p> <p>두 번째 평생학습, 사회복지사</p> <p>배움과 도전, 그리고 작은 성취가 이어지는 삶이란 놀랍도록 경이롭고 즐거운 것입</p>			

니다. 그 즐거움을 깨닫고 나서는 학점은행제로 평생학습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모두 알츠하이머를 앓고 돌아가신 것을 계기로, 기운이 있을 때 치매를 예방하는 활동을 하자는 생각에 베리트, 폴리텍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를 취득하고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했습니다. 컴퓨터를 다루는 법을 몰라 수시로 직장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로 물어가면서, 독수리 타법으로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생전 처음 들어보는 심리학 이론들을 공부하면서. 매일을 ‘그만 둘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하루만 더’라는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하루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하여 2018년 2월, 드디어 사회복지 전공 전문학사 학위를 받고, 같은 해 3월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인이 들어간 이 두 장의 문서를 보며, 한동안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친김에 2018년 12월에는 요양보호사자격증까지 취득하여 전문 자격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 했습니다.

60이면 은퇴? 천만의 말씀. 제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는 관내 경로당과 관외 경로당에서 치매예방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나름 이름난 강사입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 작금의 시대에 인지놀이 학습을 통한 치매예방 교육은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고령층의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활동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천을 해 주어서, 의왕시장에게 자원봉사 유공자에게 주는 상도 받았습니다.

사이버대학교인 디지털 문화예술대학교로 편입하여 평생학습을 이어가는 중이며 올해 4학년으로 재학중입니다. 실버인지건강학교 강사로 재직하며 경험을 쌓았고 게으르지 않으려고 봉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인지놀이지도자를 양성하는 기관에서 강의를 요청해 왔고 현재 전국으로 강의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요새 굉장히 바쁩니다. 든든한 매니저도 생겼습니다. 바로 퇴직한 남편입니다. 시간을 쪼개가며 학습과 강의, 봉사과 가정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의를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하구요, 어르신들을 만나 강의에 대한 피드백도 들으려면 하루 24시간이 모자랍니다. 30년 전 저에게 가끔 묻곤 합니다. ‘너는 네가 30년 후에, 나이 60이 넘어 강사로 살아갈 줄 꿈에서라도 생각해 본 적 있니?’라고 말입니다.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평생교육, 평생학습

두 아들들은 모두 대학을 나와서 똑똑하고 해박합니다. 남편도 40년 이상 사회생활을 하면서 쌓은 경륜이 있습니다. 30년 살림하며 뒷바라지만 한 나에게는 뭐가 남았을까? 이렇게 질문하면 가끔 슬프고 두렵습니다.

저는 제 삶의 변화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 특히 모든 여성들에게 평생학습을 꼭 권

하고 싶습니다. 제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장성한 아들과 할 수 있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밥 먹었니?’, ‘요새 어디 아프데는 없니?’ 정도였습니다. 오죽하면 아들이 엄마는 밥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며 타박하기도 했었죠.

평생학습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가족 내에서 저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관심사가 생기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자 저도 할 얘기가 생겼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요. 지혜는 지식에서 출발한다고 하지요. 아는 것이 하나하나 생길수록 자신감도 생기고, 가족들과 할 수 있는 대화도 풍부해 졌습니다.

사회의 일원이 되자 새로운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집 밖의 세상에는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봉사하다 보면 ‘그래, 나도 이 세상에서 설 자리가 있구나!’라는 자기효능감을 느끼게 됩니다.

평생학습으로 세대간의 갈등도 해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은 빨리 변하고,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잘 배웁니다. 대화의 간극을 좁히면 서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아이들은 빨리 배웁니다. 젊은 사람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하려면, 장년층도 계속 배워야 합니다.

평생학습, ‘선택’이 아닌 ‘필수’로

공모전의 제목처럼, 평생학습은 정말 ‘새 삶을 두드리는’ 열쇠입니다. 58년 개띠도 은퇴하고, 이제 곧 청년보다 노인이 많은 시대가 닥쳐 올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인 교육 정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라고도 하지요. 우리는 학교 밖을 나와서 제대로 공부 해 본적이 별로 없습니다.

평생학습은 교실에 갇혀 5지선다 문제를 푸는 공부가 아닙니다. 시험지 밖의 진짜 세상을 보게 하는 공부입니다. 성공과 지위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성취와 자아실현을 위한 공부입니다. 왜 하는지도 모른 채 달려가는 공부가 아니라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고 몰입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을 받는 분들은 모두 밝고, 떳떳하고, 긍정적이며 자신감이 넘칩니다.

우리 세대가 진정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은 무엇일까요. 저는 ‘늘 배우는 모습’ 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 후배 세대를 위해. 우리의 삶을 새로 깨우는 평생교육, 평생학습을 곧바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 좋은 것을, 저만 알고 있을수는 없으니까요.